

## 실패의 정치·신학 - 인류세 시대의 실패에 대한 종교철학적 성찰\*

박일준\*\*

### I. 들어가는 글

“언제나 도전했다. 언제나 실패했다. 상관없다. 다시 도전한다. 다시 실패한다.  
[차라리 지금인 실패하는게 낫다]” (Samuel Beckett / Keller, 2022, 224 재인용).

본 논문은 ‘실패’(failure)를 정치신학적으로 탐구한다. 특별히 ‘인류세’라는 실패를 종교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이다. 근대의 진보 이데올로기는 늘 실패를 넘어 성공을 추구하는 계몽기적 인간상을 기반으로 성패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실패의 극복을 설파해 왔다. 그 진보 이데올로기와 짝을 이룬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한경쟁을 통한 양적 성장을 ‘성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성취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 규정하며 지금까지 물질문명의 성장의 잣대를 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8810).

\*\* 일광대학교 한중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정해 왔다. 그런데 인류세(the Anthropocene)는 1) 진보를 추구하던 근현대문명에서 인간의 영향력이 이제 인간의 역사라는 스케일을 넘어 지질사라는 거대한 스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2) 그로 인해 이제 우리 앞에 6번째 대멸종이라는 대참사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통해 도래하면서 인간문명의 총체적 실패를 가르키고 있다.

이 거대하고 총체적인 실패 앞에서 우리의 정치적, 신학적, 철학적 성찰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를 앞에 놓고 통상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체현하는 비관주의(pessimism)나 긍정과 외면을 역설적으로 결합하여 체현하는 낙관주의(optimism)로 대응하는 이분법적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희망’은 속절없이 낙관주의와 동일시되면서, 참혹한 현실을 은폐하거나 덮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근거없는 기대감을 양등시키는 잘못된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희망은 ‘인민의 아편’ 기능을 감당할 뿐이다. 진통제로서 아편도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증상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없이 통각(痛覺, nociception)만을 못 느끼도록 해주는 진통제는 오히려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며 사태를 은폐시킬 뿐이다. 실패에 대한 통렬한 인식과 성찰은 아편으로서의 희망을 지양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희망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 신화학자 캐서린 켈러(Catherine Keller)는 ‘더 잘 실패하기’(a failing better) 혹은 ‘차라리 지금은 실패하는게 낫다’(failing better now)는 논제를 제시하는데, ‘더 잘 실패하기’란 인류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질러온 문명적 실패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실패를 위한 실패나 실패를 통한 악화의 심화와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희망이란 실패와 좌절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도래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실패의 좌절과 상실로부터 고통을 은폐하거나 가리는 맹목적 혹은 무조건적 긍정의 희망 대신 ‘수 의에 덮힌 희망’(hope draped in black) 혹은 ‘어둠 속에 놓인 희망’을 갖고 인류세를 살아가는 방법을 디페시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의 행성론과

거주가능성 개념들과 시노하라 마사타케의 사물 개념을 통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 II. ‘더 나은 실패’(혹은 ‘차라리 실패가 낫다’)

인류세가 우리 인간문명의 총체적 실패를 가리킨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근대 계몽기로부터 유래하는 기술과 진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기후재난과 생태위기들을 통해 도래하는 6번째 대멸종은 근대적 문명의 성취와 발전이 없었다면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시대는—말하자면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대는—이제 근대적 문명이 근원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전환은, 우리들의 바램과는 달리, 결코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존 사유와 삶의 체계를 철저히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 체제의 실패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거짓된 성공으로 포장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그 실패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실패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한, 이 실패들은 차라리 성공보다 낫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공은 더 큰 실패들을 불러올 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나은 실패’(failing better)가 주장하는 바이다.

### 1. 인류세의 역설과 진보와 성장의 이데올로기

기후재난과 대멸종의 위협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많은 이들이 “인류세”(the Anthropocene)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2000년 대 초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첸(Paul J. Crutzen)은 지질학적으로 현세를 칭하던 홀로세(the Holocene)를 “인류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데, 이는 인간문명의 역사가 이제 인간역사의 스케일을 넘어 지질학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다(Crutzen & Stoemer, 2000, 17). 즉,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 디페쉬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가 말하듯, 이제 인간은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Chakrabarty, 2021, 3). 본래 지질사는 인간의 역사와 워낙 스케일의 차이가 커서, 지질학에서는 인간의 (역사적) 영향력을 주요 인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인간 문명의 생태적 족적이 지질시대를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힘으로 변모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활동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류세의 역설이 자리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재난들은 인간의 문명적 행위들에 대해 비인간 행위주체들이 자신들의 응답-능력(response-ability)<sup>1)</sup>으로 답하는 사건들이다. 말하자면 ‘인류세’란 이 비인간 주체들이 적극적인 행위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이 비인간 행위주체들에는 우리가 여태껏 ‘존재’ 혹은 ‘주체’ 혹은 ‘생명’으로 간주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 기후 시스템과 해류 시스템같은 종류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류의 거대한 객체를 티모시 모튼(Timothy Morton)은 “초객체”(hyper object)라 불렀다(Morton, 2013, 2). 그러한 류들은 우리 인간 유기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감각능력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sup>2)</sup> 즉 인류세의 역설은 곧 인간의 영향력이 지질사를 바꿀 만큼 커진 시대에 이제 비인간 행위자의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모습으로 인간을 포함한 전 생명 공동체에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위협하게 발휘되고 있으며, 특별히 이것이 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응답-능력의 발휘라는 역설을 가리킨다. 다시

1) 카렌 바라드(Karen Barad)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responsibility를 response-ability로 표기하면서, 윤리적 사유의 전환을 요청한다. 윤리는 ‘책임’의 문제에 앞서 무엇보다도 ‘응답-능력’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2) 우리가 지구온난화나 생태위기 혹은 대멸종의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느긋한 이유는 이 거대한 초객체들의 변화를 인식할 인지기제를 진화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탓에 이것들의 위기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모튼은 부연하기도 한다.

말해서 ‘인류세’라는 시대는 인간의 행위역량이 역사를 넘어 지질학적 스케일로 확장된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인간 행위자들의 힘에 대응하여 비인간 행위자들의 힘이 더욱 더 강력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시대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고, 이를 ‘인류세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함께 얽혀, 함께 ‘존재’라는 사실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통감하게 된다. 즉 인류세는 결국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와 함께 얽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얽힘의 존재구조’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이름인 셈이다. 존재란 얽힘(entanglement)이며, 이 얽힘은 인간을 포함한 유기적 생물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존재들과의 얽힘도 포괄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행위가 기후변화나 해류시스템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6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즉 그 존재의 이 얽힘 속에서 양자(quantum)나 분자와 같은 물질적 존재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다른 존재들과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주고받으며 존재를 ‘함께-만들어-나간다.’ 이를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심포이에서스”(sympoiesis) 즉 ‘함께-만들기’(making-with)라고 불렀다(Haraway, 2016, 58). 우리는 비인간 생물존재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존재들과도 얽혀있고, 이 얽힘 속에서 존재의 사건들을 함께 창발시키며 우리의 실존을 구성해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인류세란 인간이 이 존재의 얽힘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인간 문명이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구조 속에 구축되어 있어, 이 인류세의 역설적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기후재난들은 우리의 정치, 경제, 철학, 신학, 및 생태학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실패를 부인하고 이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쏟아내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난을 피해갈 거대한 우주선을 짓는다든지 혹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최대한 내 즐거운 대로 혹은 내가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든지 아니면 이런 무능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정치인이나 연예인에게 쏟아내느라 때로는 광장으로 때로는 SNS로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분노의 이면에 바로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결합된 진보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문명이 무한한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없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무한한 양적 성장은 본래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근대의 진보 이데올로기는 ‘성장’이란 말을 교묘하게 ‘양적 성장’으로 등가시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문명의 무한한 진보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성장은 무한히 지속된다는 믿음을 주입하였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언제나 ‘경쟁’ 즉 ‘무한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에서 탈락한 소위 ‘루저’들을 양산하고, 이들은 곧 진보와 성장의 대가로 간주된다. 결국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진보는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끊임없이 희생양 삼아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브루노 라투르에 따르면, 그 근대의 진보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며, 최소한 우리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화의 이상인 진보, 해방, 발전을 모두 수용할 만한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Latour, 2021, 36). 근대화 기획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끝없는 성장은 본래부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후와 생태 위기는 우리에게 그동안 무엇을 실패하였는지를 준엄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이 실패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다는 것을 각종 재난의 물적(物的) 행위성으로 알려주고 있다.

## 2. 성공보다 나은 실패(failing better)

여기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는다. 기후변화

와 생태위기는 인간이 “특별하다”(unique)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복한다 (Chakrabarty, 2021, 63). 이는 곧 철학적/신학적 인간학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 서구의 철학적 인간학은 근원적으로 서구의 신학적 인간학의 아이디어로부터 유래하는데,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적 특권과 우월성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리고 이 서구의 특별한 신학적 인간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독특성과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그런데 인류세란 바로 그 신학적 인간학이 우리 모두를 ‘실패’로 몰아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여겼던 인간의 문명이 역설적으로 기후변화위기와 생태위기를 통해 모든 생명있는 존재들의 6번째 대멸종이라는 절박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이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오래전부터 이미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외쳐왔지만, 우리의 국내 및 국제 정치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바꾸거나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무한 성장이라는 진보의 꿈을 ‘만능기술’(*techno-fix*)을 통해 계속 구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들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적 성장’에 집착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본주의적 해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인류세는 또한 “자본세”(Capitalocene)이기도 하다(Haraway, 2016, 5). 행성의 비인간 존재들이 “자본을 위한 자원”으로만 간주되고 있으며, 1%에 속하는 상위 엘리트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부를 위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그저 자원으로 “지구 자체로부터 추출”하고 있는 시대 말이다(Keller, 2022, 161). 그리하여 근대로부터 유래하는 지금의 문명이 꿈꾼 ‘진보’의 이상과 시간도식은 점점 “망상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세의 도식하에서 지구는 “사유재산의 세계화”를 위한 부동산으로 전락하여, 이제 지구는 정령 “그저 파산하여 자본이 잠식된 부동산” 신세가 되어 버리고 있다(Keller, 2022, 177).

인류세 시대에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희망은 기술적 진보를 근거로 삼는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 특별히 기후변화, 생태위기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테크노-픽스’(techno-fix)에 대한 기대감 말이다. 그런데 정말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오히려 여기서 희망은 그가 소망하는 “대상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대치”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Keller, 2022, 173), 그래서 헛된 기대와 낙관으로 현재를 대치하여, 결국 현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기대로 충만한 망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 가능한 위기로 진단하고, 여전히 경제의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첨단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을 창출해 내는 방식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발달해 갈수록, 부의 양극화는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고,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분노와 절망과 실망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 그리고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을 통해 끊임없이 소위 ‘루저’(loser)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루저’만을 양산하며,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 상황은 우리의 총체적인 실패,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실패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럴 땐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잘못된 세계를 개혁하거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차라리 이 세계는 붕괴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계의 종말이 결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종말을 고한다 해도, 지구와 많은 비인간 존재들은 자신들만의 살길을 잘 찾아가갈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구축해 왔던 세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차라리 그 세계는 붕괴하고, 다른 세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세계가 실패했다는 것을 진지하고 깊이 성찰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실패가 허무한 정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곳에서, 우리는 차라리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캐서린 켈러는 “더 잘 실패하기”(a failing better)를 제안한다(Keller,

2022, 178). 우리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쟁구조 속에서 결코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단 한 번의 실패는 그냥 ‘아웃’이다. 재기의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루저’가 되고, 한 번 루저가 되면 두 번 다시 재기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잘 실패하기’ 혹은 ‘차라리 실패하는게 낫다’는 켈러의 개념과 태도는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비관주의(pessimism)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실패와 좌절을 외면하고, 망상적 기대와 환상으로 현실을 은폐하는 몽매한 낙관주의(optimism)을 거절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갈 길을 모색하는 희망, 즉 ‘수위에 덮힌 희망’(hope draped in black) 혹은 ‘어둠 속에 놓인 희망’(hope in the dark)을 모색한다.

켈러의 ‘더 잘 실패하기’가 그려주는 희망은 우리들의 정치가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데 철저히 실패해 왔고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실패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켈러는 이 실패의 지평선에서 그 실패를 영속화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실패로 인해 패배주의로 빠져드는 대신, 그 실패와 그로 인한 상처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의 임재를 서술한다. 역설적으로 이는 신의 죽음과 실패를 통해 도래한다. 즉 서구의 기독교 신학이 꿈꾸었던 전능한 신, 바로 그 신의 죽음 말이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실패 속에서 켈러는 서구문화의 신의 죽음과 세계의 죽음을 예감하는데, 이 신과 세계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과 세계에 투사하였던 낙관적 망상으로부터 깨어나도록 이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라는 우리 시대의 인류세적 실패는 바로 이 세계를 떠받치던 개념적 토대가 붕괴하는 사건이며, 서구에서는 이것이 다름 아닌 신의 죽음으로 경험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신 개념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만일 서구 기독교와 서구 문명이 꿈꾸었던 신이 전능한 신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어왔다면,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실패했다.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충

만한 세상의 실현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세계의 실현을 위한 혁명들은 언제나 실패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전능한 가해자의 소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면, 역사 속의 참혹한 사건들을 상기해 보는데, 우리는 “그저 정의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Keller, 2022, 215). 그때, 즉 신의 죽음이 일어난 근대에서 신의 자리를 대신한 과학기술은 전능성이라는 신의 속성을 모방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의 해결사로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명의 진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진보의 꿈. 하지만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양등하고 있는 인류세에 그 진보의 꿈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고전적인 초월의 신이 담지한 전능의 속성을 물려받은 과학기술조차 더 이상 진보의 꿈을 유지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진보의 이상이 붕괴하고 실패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진보의 세계가 붕괴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모두의 종말이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잘 못 났다는 것, 졌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에는 무언가 강력한 것이 존재한다”(Hallberstam, 2011, 120-121). 그 ‘강력한 무언가’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들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다. 우리의 용기를 담은 시도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할 운명”을 갖고 있지만(Keller, 2022, 209), 그 실패들은 종종 우리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도발적인 도전들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기존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세계의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 세계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세계도 완벽한 세계는 없다. 그것은 곧 “그 자신의 실패들과 더불어 믿음을 지키자”는 제안이며, 또한 “실패의 복잡한 감정적 움직임들에 대한 마음챙김(mindfulness)을 연습”하는 것이다(Keller, 2022, 209). 여기서 ‘마음챙김’이란 몸과 분리된 결심이나 의지의 문제로 축소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과 생태위기는 마음이나 정신이 결코 몸과 물질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래서 마음 혹은 정신의 변

화가 가능하려면 그의 몸적 기반과 물적(物的) 기반이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가리켜 주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이 먼저 중요한 이유는—칸트의 ‘물(物) 자체’(*Ding an sich*)에 인간의 인식이 직접 도달할 수 없듯이—인간의 모든 행위와 실천은 실재 혹은 물(物)에 완전히 이를 수 없는 ‘근원적 불가능성’ 혹은 ‘근원적 실패’를 담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즉 그 모든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과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몽매한 낙관주의가 예언하는 외면과 환상의 굴레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진정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실천을 “더 잘 실패하기”(falinging better)는 촉구하고 있고, 마음챙김이란 곧 ‘더 잘 실패하기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 III. 인류세(the Anthropocene)라는 실패

이 인류세적 실패의 근원에는 근대 이후 진행들이 축적된 ‘세계화’(globalization)가 놓여있다. 세계화는 ‘지구’(earth)를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차크라바티는 ‘세계화’로 번역되는 globalization이란 단어의 ‘global’을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hakrabarty, 2021, 3). 말하자면 ‘지구’(the earth)가 “지구”(the globe)로 도식화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 전략의 도식이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세계화(capitalist globalization)와 지구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체적 일체로 혼동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오늘날 기후변화와 생태의 위기들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Keller, 2022, 132). 자본주의적 세계화 즉 소위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은 지구의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본으로 전체 세계를 하나로 엮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지구 시스템은 행성의 모든 존재가 유기적 전체로 얽혀있다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이 자본과 상품화를 위한 자원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혼동을 교정하기 위해 차크라바티는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본래 외계 행성이 생명을 위해 적합한 곳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외계 행성들 가운데 인류가 살만한 “거주 가능성”(habitability)을 찾으려던 연구가 지구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하나의 행성으로서 지구가 인류의 거주조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현재 지구의 거주조건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Chakrabarty, 2021, 84-85). 특별히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는 현재 지구행성의 ‘거주력’(habitability)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구를 다른 행성들과는 아주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인간의 집으로서 보기보다 오히려 다른 모든 행성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구를 외계행성과 같은 하나의 행성(a planet)으로 타자화시켜 볼 수 있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지구의 고유성을 깨닫게 되었다.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전체로서의 지구로서 말이다. 우리의 거주조건은 바로 지구 위 모든 존재가 얽혀서 만들어내는 존재의 망 혹은 존재의 얽힘에 기반한다.

약술하자면, ‘세계화’(the global)와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은 지구 위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얽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유사성을 갖지만, 어떻게 얽혀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근원적으로 다르다. 세계화는 자본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정치경제적 기획이었고, 이 기획 속에서 세계화된 지구는 가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통합된 세상으로서, 그 세상에는 실제로 아무도 살지 않는 네트워크 상의 가상공간 개념에 더 가깝다. 반면, ‘행성적인 것’은 이 행성 위에서 우리의 삶은 유기체와 무기물, 생명과 비생명, 인간과 비인간 등의 존재들이 한데 얽혀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Keller, 2022, 132). 즉 인간이란 비인간 존재들과 더불어 “기술적-사회경제적-생물학적 복합체”(techno-socioeconomic-biological complex)의 일부를 구성

하지만, 역으로 그 복합적 행위자-네트워크가 인간에게 종속된 것은 전혀 아니다. 차크라바티의 관점에서, ‘지구’(the globe)는 “인간중심적 구성물”이지만, ‘행성’(planet)은 인간을 “탈중심화”(decenter)한다(Chakrabarty, 2021, 4). 이미 언급한 바,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란 지구가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과 원리들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지구 시스템을 엮어가는 기후와 생태 법칙들로부터도 마찬가지이다. 즉 세계화가 인간주도의 문명을 통해 끝없는 성장의 신화를 양산하며, 그 모든 재난과 이변으로부터 인간이 예외되는 “테크노-영지주의”(techno-gnosticism)의 꿈을 양산한다면(박일준 2019, 130), 행성적 관점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조차도 그러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 1. ‘집(home)이 아닌 행성(planet)으로서 지구: 지구를 타자성으로 조망하기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에서 우리는 지구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고향’ 혹은 ‘집’(home)이 아니라 하나의 ‘행성’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구를 우리를 위한 혹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는 이질적인 혹은 타자적인 ‘것’ 혹은 ‘물질’로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전환은 지구를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 비인간 타자 즉 물(物)의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타자적 관점 혹은 물(物)의 관점으로 조망한다는 것은 지구를 우리와 다른 이질성으로서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구를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지구 위를 함께 살아가는 비인간 존재의 관점으로 더 비중있게 조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인간 존재들이 인간의 실존 혹은 존재에 포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비인간 존재의 얽힘 속에 엮인 일부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조망한다는 말이다. 이를 ‘사변적 전환’(speculative turn)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변’

(speculation)은 통상 철학적 번역어로서 통용되는 논리적 추론이나 변론의 의미를 넘어 ‘상상’이나 ‘억측’ 혹은 ‘추정’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함의한다.<sup>3)</sup> 그래서 ‘사변적 전환’이란 곧 상상력을 통한 전환의 의미를 담지한다. 즉 행성성으로의 전환은 ‘사변적 전환’이다.

‘행성성’(planetary)에 대한 의식은 일찍이 탈식민주의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을 통해 도래했다(Chakrabarty, 2021, 71). 세계화(globalization)는 언제나 경제체제의 세계화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의 국경없는 이동을 주장하면서, 인간행위를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행성성은 그러한 세계화의 역사를 근대 유럽 제국주의의 성장으로부터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은 금융자본주의와 기호자본주의에 이르는 역사로 파악하고, 이를 매우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행성적인 것이 추구하는 행성성은 결코 모든 것을 자본주의의 네트워크 속에서 상품과 자원으로 간주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도식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를 지질학적 행위자로 만들어, 이 시대를 인류세로 만든 원인들의 이면에는 역사적 낙관주의에 근거한 진보주의와 배금주의적 경제성장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행성성의 의식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성성이란 이 인간중심적인 세계화 과정의 한복판에서 행성이 인간에 절대적 타자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행성성(planetary)으로서 지구는 “지구 시스템 과학”(Earth System Science, ESS)에서 말하는 지구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구라는 행성을 우리의 ‘스윗홈’으로 조망

3) 통상 철학분야에서 speculation과 speculative는 ‘사변’과 ‘사변적’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사변(思辨)이란 한자어의 의미는 통상 추상적,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이성적 논변으로 통용되지만, 영어권에서 speculation은 ‘상상’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누군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나 궤변을 말할 때, ‘It’s all your speculation’이라고 대꾸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사변은 한자어의 ‘사변’과는 달리, ‘그건 모두 네 상상일 뿐이야’라는 의미를 담지한다. 요점은 speculation은 상상 혹은 상상적 추론 혹은 논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speculative realism’은 사변적 실재론이라는 한자어의 의미에 더해, ‘상상적 추론에 기반한 실재론’이란 의미를 동시에 함의한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외계 행성인 듯이 “지구 행성을 바깥으로부터 취해진 관점으로부터” 조망하며, 낯설게 접근한다(Chakrabarty, 2021, 78). 예를 들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적 작용들’을 지구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대기, 물, 생물, 땅 등이 마치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a single system)처럼 작동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Chakrabarty, 2021, 76). 하지만 이는 지구가 그저 거대하고 획일적인 하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어도 지구는 “대기권, 수권(hydrosphere), 생물군(biota), 그리고 단단한 땅”의 부분들로 구성되었고, 각 영역은 자체의 시스템적 역학을 갖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연관되어 얽혀있다(Chakrabarty, 2021, 77). 이 얽힘을 통해 지구는 자신만의 항상성(homeostasis) 조절 시스템을 유지한다. 생명이 살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화성의 시스템을 검토하던 관점을 지구로 적용해 보았을 때, 지구의 주인공은 결코 인간이나 인간 문명과 삶이 아니라 대부분 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들로 엮인 “복잡한 다세포 생명 일반”이 된다(Chakrabarty, 2021, 78).

이렇게 얽힘으로 지구의 존재를 조망한다는 것은 곧 지구를 타자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얽힘’은 주체의 동일성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들을 엮어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투르는 지구를 ‘가이아 이론’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의 결성으로 구성한다. 즉 라투르는 가이아로서 지구를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로 간주하며 조망하는데, 행위자-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것은 곧 ‘행위’의 주도권을 타자로 “넘김”(overtaken)의 관점으로 조망한다는 것이다(Latour, 2005, 39).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행위란 언제나 우리의 행위자-네트워크로 침노해 들어오는 타자의 힘에 장악된다는 것, 즉 “other-taken”을 의미한다(Latour, 2005, 39). 따라서 우리의 얽힘이란 곧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주체적 행위가 아니라 타자들을 향하여 열린 행위로 발휘되는 것, 즉 그 타지들에 대한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행성적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식

하지 못했던 지구라는 타자의 관점으로 우리의 행위를 조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성으로서 지구의 타자성을 망각한 데에는 우리의 철학이 ‘주체의 철학’이었고, 그래서 object를 줄곧 ‘대상’(對象)으로 보았지 결코 ‘객체’(客體)로 보지 않으려 했던 탓도 있다. 대상은 object를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면서, 주체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생태위기 및 기후재난들은 단순한 대상으로 간주되던 객체들이 인간의 행위에 응답하여, 그들만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철학의 관점을 ‘객체-지향의’(object-oriented)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철학자들은 이제 “우주 속 대다수의 관계가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객체들의 관계에는 “인간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Harman, 2020, 49) 그래서 실재(reality)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들의 측면에서 스스로 개입한다”(Morton, 2013, 20)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구의 이러한 얽힘 혹은 “지구 시스템” 즉 “하나의 얽힌 시스템으로서 지구”(Earth system)에 대한 인식을 촉발한 것은 세계화였다(Chakrabarty, 2021, 3). 사실 ‘지구’(the globe)와 ‘행성’(planet)은 분리되기 보다는 오히려 “근대 자본주의와 기술 현상들”을 통해 연결된 사건들이자 개념들이다(Chakrabarty, 2021, 4).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는 “계급과 성 그리고 인종에 의해 굴절된 불균등한 자본주의적 발전의 귀결”이기 때문이다(Chakrabarty, 2021, 4). 지금의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재난들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얽혀있는 지구 위 세계들에서 ‘세계화’가 진행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적 부정의를 ‘지구 시스템’은 분별하지 않는다. 마치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신의 은혜처럼 말이다. 그 비가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심판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을 당하는 인간의 관점이지, 결코 자연 혹은 ‘지구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아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대한 지구적 위기들을 헤쳐 나아가는 데에는 속

절없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지속력이 아니라 거주가능성으로서 지구를 다시 보기

행성성으로의 전환 즉 세계적인 것(the global)으로부터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그리고 지구 온난화같은 문제들을 조망할 때 줄곧 사용하는 ‘지속력’(sustainability) 개념을 거주가능성(habitability)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력 개념은 극히 인간중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속력’ 개념은 폴 워드(Paul Warde)에 따르면, 17세기 이래 농업이나 임업 분야를 경영하는 이론에서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바다 생태계의 지속력이란 인간이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애초 도입되었다. 즉 인간의 필요를 위해 농경지나 숲 혹은 바다의 ‘지속력’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물론 이를 통해 우리의 생태적 인식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개념의 배후에는 언제나 “인간문명을 유지하려는(sustaining) 관심”이 도사리고 있다(Chakrabarty, 2021, 82). 그리고 이 개념은 20세기 생태운동과 소위 “녹색 자본주의의 주문”(mantra of green capitalism)으로 여전히 우리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Chakrabarty, 2021, 82). ‘지속력’이란 단어는—일핏 번역어를 통해 느끼기에는 지구의 생태학적 지속력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한 ‘지속력’을 ‘지속가능성’으로 의역하면서 존재의 얽힘과 시간의 얽힘에 바탕한 존재와 생명의 얽힘을 고려하는 것 같지만—실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너무도 인간중심적인 개념인 것이다(Chakrabarty, 2021, 82).

지구를 ‘집’이 아니라 ‘행성’으로 조망한다는 것은, 지구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나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지구의 시스템에 얽혀 살아가는 한 생물종임을 다시금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기들 앞에서 ‘지속력’(sustainability) 즉 현재의 인간문명을 유지할(sustaining)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이 행성이 우리와 같은 생물·들’

이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갈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차크라바티는 “거주력” 혹은 “거주 가능성”(habitability)이라고 불렀다(Chakrabarty, 2021, 83). 거주 가능성은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조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존재가 지구에 거주 및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괄하며,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sustainable) 역량을 가리킨다. 그래서 거주 가능성(habitability)이란 생명들이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성의 역량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이는 사람을 포함하여 행성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들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물론 이 개념은 인간 존재에게도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인간을 넘어서 전체 생명망의 역량과 조건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개념을 함의하는 지속력과 달리 탈인간적 인(post-human) 개념이다. 농업이나 임업 분야에서 지속력을 관리하려 할 때 이 관리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지만, 거주 가능성을 말할 때에는 개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혹은 “행성”(the planet)이 되기 때문이다(Chakrabarty, 2021, 83). 차크라바티가 지속력 개념으로부터 ‘거주 가능성’ 개념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력으로부터 거주 가능성으로의 개념적 전환은 더 나아가 행성을 인간의 집 즉 오이코스(oikos)로서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집 혹은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지구를 타지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다시 인간중심적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라고 지칭하는 그 복수 대명사에 이제 인간 존재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까지도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박일준, 2022, 33-66). 경제학(economics)과 생태학(ecology)이란 용어들 모두 이 집 혹은 가정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로부터 유래하는데, 이는 곧 집이란 삶의 활동을 함께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이제 우리의 경제와 생태가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인식 즉 ‘심포이에시스’(sympoiesis)의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조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 전환의 핵심에는 바로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거주 가능성’으로의 전환이 동

반되어야 한다.

### 3. 테크노-픽스를 넘어 비인간 타자로서 지구를 수용하기

이제 지구를 타자로 혹은 타자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역량 즉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세 시대 우리 인간문명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이 지구 시스템에 지질학적 행위자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역량”(capacity to fix)은 거의 전무하거나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Chakrabarty, 2021,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인간의 삶은 지구 표면을 둘러싼 소위 “기술권”(technosphere)에 너무 의존해 있어서,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이 이 기술권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차크라바티는 지질학자 피터 헤프(Peter Haff)에 말을 빌려 이제 기술이 “지구(the Earth)를 [인간과 또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위한] 우주선(spaceship)으로” 만들어버렸다고까지 표현한다(Chakrabarty, 2021, 6). 이제 “기술이 실패한다면, 생명은 참사를 맞이하게 된다”(Chakrabarty, 2021, 6). 여기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기술권이, 헤프의 말을 빌리자면, “행위주체성”(agency)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주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Chakrabarty, 2021, 6). 어찌면 기술은, 모든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거대한 존재로서 ‘초객체’(hyperobject)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그런데 ‘테크노-픽스’의 환상은 세계화 즉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역작용들인 “불평등의 폭주, 포퓰리즘의 물결, 이주 위기” 등과 같은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한 “초감부”들의 대안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아이디어’였다(Latour, 2021, 42).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일런 머스크(Elon Musk)같은 이들이 주창하는 화성이주계획은 현실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환상을 바탕으로

‘스페이스 X’ 사업을 홍보하고, 그에 힘입어 지구 궤도에 자사 인공위성 네트워크인 ‘스타링크’를 설치하여, 이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는 기후위기론자들과 기후부정론자들의 대립적 전선을 제3의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세계를 벗어나는 길”(Out-of-This-World)<sup>4)</sup>을 테크노-픽스는 환상으로 창출하며 새로운 “비현실로의 이륙”(Latour, 2021, 61)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것이다. 문제는 ‘테크노-픽스’가 우리가 처한 지구적 위기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의를 새로운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세계화 체제를 기반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최대치까지 밀어붙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후와 생태의 위기들이 마치 사라진듯한 효과를 갖지만, 이는 그저 ‘인민의 아편’으로 작용할 따름이다.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주체가 된 인류세는 “행성 수준의 기후변화를 다스릴 통치 메카니즘의 창출을 위한 우리의 지구적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 인류가 “지구적 문제들”(global problems)을 다룰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Chakrabarty, 2021, 12). 오늘 우리에게 도래하는 범지구적 위기들은 인간과 “지구/세계”(earth/world)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지구와 세계 간의 분리가 가장 핵심적이다(Chakrabarty, 2021, 18). 인류세 시대에 이 상호적 관계를 파손한 것은 인간의 행위주체성이었다. 이 통찰을 차크라바티는 앨런 와이즈먼(Alan Weisman)의 유명한 책 『인간없는 세상』의 이미지로부터 얻었다(2007). 지구는 우리 인간 없이도 그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지금의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멸종’을 예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위협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가 담지한 “생물학적이고 지질학적인” 조건들이다(Chakrabarty, 2021, 36). 왜냐하면 그 조건들 위에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의 생존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화를 통해 인간의 조건

4) 역자는 “Out-of-This-World”를 “외계”로 번역했지만, 정확히는 외계가 아니라 “이세계-바깥으로”라는 의미이다(Latour 2021, 58).

들을 지구에 강요하고 착취하는 방식을 멈추고, 타자로서의 지구가 인간을 포함한 대지의 생명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경고들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 4. 인류세의 실패와 라투르의 낙관주의를 넘어서: 실패를 품은 정치학

인류세의 실패는 심각한 정치적 실패이다. 왜냐하면 타자성 즉 객체성에 우리가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는가를 성찰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실패의 핵심에는 우리의 정치가 이 비인간 존재들의 객체적 행위주체성에 응답-능력을 발휘하는데 전혀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생태계의 존재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 시스템, 해류 시스템, 빙하 시스템 등 지구 시스템들이 건네오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반영하는데,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라투르는 우리가 이 비인간 존재들의 언어 없는 소리들에 정치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정치적 “대변인”(spokesperson)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Latour, 2004, 64). 우리의 정치가 국제정치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정치 차원에서 우리와 더불어 삶을 ‘함께 만들어-나가는’(sympoietic) 비인간 존재들의 말없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반영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철저히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인류세”는 “심각하게 정치적인 문제들”이다(Chakrabarty, 2021, 13).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일치된 해결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와 얽혀 삶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든 존재들도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후변화와 인류세를 정치적 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이 문제들을 단지 자본주의의 문제로만 축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이 위기 앞에서 “특권층과 부유한 자들을 위한 구명보트(lifeboats)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Chakrabarty, 2021, 45). 당연히 가난한 자와 별 볼 일 없는 비존재 같은 이들에게도 구명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구적 재난들의 위협 아래

놓이는 것은 “집단적 인류”(human collectivity)이고, 그 위협 아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특권을 가진 자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나 모두 똑같이 ‘파멸의 운명을 공유한다’(Chakrabarty, 2021, 4). 이러한 파멸의 예감이 특별히 근대 이래, “모두가 풍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향해 진보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는 근대의 진보 이데올로기-자본주의자나 공산주의나 모두-로 인해 자꾸 희석되고 은폐되고 있다(Chakrabarty, 2021, 57).

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로만 축소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인간 존재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투르는 “사물 의회”(parliament of things)를 제안하는데, 이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던 계몽기적 직관의 재해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사회는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경합을 벌이며 반영되는 장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직관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바로 ‘인간’(humans)을 ‘비인간 존재들’(the nonhumans)과 철저히 분리하여 정의하던 습벽을 해체하는 일이다. 존재는 ‘행위’(doing) 안에서 실존을 갖는 것이고, 이는 곧 존재란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행위한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연결된 존재 혹은 여러 존재들을 엮어 형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며, 바로 이것이 ‘사람’(anthropos)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라투르는 이제 ‘인간’을 어떤 본질이나 속성을 통해 정의하고 규정하는 서구의 습벽을 버리고, 존재들을 연결하고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서 ‘형상들을 엮어나가는 자’(weaver of morphisms)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Latour, 1993, 137).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규정해 왔던 존재의 형상들은 사실 ‘주체’(subject)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체(the collective) 내에서 여러 존재들과의 상호작용과 연결을 통해 행위자-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해체하기를 반복하는 ‘준주체’(quasi-object)들이며, 대상(object)이라고 번역해 왔던 존재들도 자신들의 행위주체성(agency)을 가지고 준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며, 행위자-네트워크에 결성에 적극 참여하는 ‘준객체들’(quasi-objects)이다(Latour, 1993, 137-138). 이렇게 ‘준주체’로서 인간을 정의할 경우, 이제 인

간은 여러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행위자-네트워크로 엮여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자로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연결된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담아 “헌법”(the Constitution)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된다(Latour, 1993, 138-142). 그리고 그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라투르는 “사물 의회”(parliament of things)라고 불렀다(Latour, 1993, 142-145).

바로 이 지점에서 라투르의 ‘가이아’ 관점과 차크라바티의 ‘행성생’은 미묘한 차이점을 담지하게 된다. 비록 라투르는 ‘사물 의회’를 통해 “북극 곰들이 인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분쟁심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종간 통치조직(multispecies organization of governance)”이—쉽지는 않겠지만—가능하다고 본다(Chakrabarty 2021, 44). 하지만 차크라바티는 라투르의 이런 구상이 거의 “과학-시학적 직관”(scientific-poetic intuition)이라고 표현하면서(Chakrabarty, 2021, 80),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고 평가한다(Chakrabarty, 2021, 44).

오히려 차크라바티는 인류세적 전환 즉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문명의 실패 즉 우리 인간문명의 정치적 실패에 보다 초점을 둔다. 인류세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주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없는 문제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구적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우리 인간 혹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행성을 유지해왔던 ‘지구 시스템’이며,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은 이를 인식하는데 실패해 왔고, 그래서, 라투르가 지적하듯이, 이 실패를 지구정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번역해 내는데 실패해 왔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역사를 변혁하는 주체가 된다는 근대적 진보사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래서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에도 우리는 이 실패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

여기서 적어도 우리는 지구대기의 생태문제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보

고, 거기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해야한다. 라투르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정치를 구상하면서, 만일 과학자와 “시민들, 활동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협력하여, 이 위기들을 감지하는 “감지기들”(sensors)이 되어 경고를 울리며, 대안을 모색하고 성찰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Chakrabarty, 2021, 88). 하지만 차크라바티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코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아마도 있어나지 않을(unlikely)”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다(Chakrabarty, 2021, 88). 즉 차크라바티는 우리의 실패가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희망 대신 절망을 선택해야 할까? 아님 희망을 외면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일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냉철한 지적은 때로 포기하지는 비판적 체념주의로 들린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비판과 절망을 넘어, 라투르의 제안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희망없이 송고한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다, 장엄하고 당당하게 최후를 맞이하자고 해야 할까? 이들 다 전혀 대안이 아니라면?

#### IV. 폐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물들과 그 객체성

사실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 기보다는 아마도 “지진, 화산분출 그리고 쓰나미”같은 사건들 속에서 행성(planet)이라는 “초객체”(hyberobject)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의미있게 다가온다(Morton, 2013, 9; 박일준, 2021, 9). 그래서 차크라바티는 ‘행성’이라는 개념적 범주가 “하이데거의 ‘지구’(earth)”나 제임스 러브록과 브루노 라투르의

“가이이”와 다르다고 표현한다(Chakrabarty, 2021, 70). 행성 개념은 금성이나 화성처럼 현재 생명체가 없는 행성들을 포함한 다른 행성들과의 동등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와 가정으로서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들과 동등한 행성으로서 지구를 행성 개념은 함축한다. 일본의 철학자 시노하라 마사타케는 그래서 우리가 행성과 같은 사물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곳은 “붕괴”가 일어난 곳 혹은 “폐허” 앞에서라고 말한다(시노하라, 2022, 6). 거기서 이 지구도 금성이나 화성처럼 생명체가 없는 행성으로 붕괴되어 갈 수 있음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시노하라는 이 예감의 전조를 1995년 고베 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포착한다. 그 재난들은 인간존재의 인공적인 삶의 조건들이 “언젠가는 붕괴해서 ‘무’로 돌아”간다는 의식, 즉 “인공적인 세계가 무너져서 언젠가는 폐허가 된다는 감각”을 전개한다(시노하라, 2022, 7). 이 무(無)로 달려가는 문명은 이제 “지구로부터의 이탈”을 예증하며, 이 지구로부터의 이탈은 곧 행성으로의 전환을 가리킨다(시노하라, 2022, 123).

## 1. 동일본 대지진의 폐허로부터 들려오는 물(物)의 소리

동일본대지진은 라투르의 표현을 따르자면 근대의 헌정(the Modern Constitution) 하에서 자연과 인공 혹은 사회를 이분화하던 행위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 “인간이 만든 인공물들이 자연과 분리된 채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했다(시노하라, 2022, 18). 인간의 조건으로서 인공물과 자연의 분리는 인공물들을 인간의 의지대로 거의 무한히 생산할 수 있었던 근대에 이르러 급속히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 혹은 자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터전인 ‘지구’는 무사당하거나 외면당해왔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남겨진 폐허의 자리에서 자연이든 인공물이든 모든 것은 모두 붕괴된 폐허의 모습으로 남았다.<sup>5)</sup> 그 폐허 위에서, 그 붕괴의 경험 속에서 시노하라는 곧 인간이 “자연에 의해 지탱되고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새삼 각성케되

면서, 자연이라는 타자의 야생성을 온전히 접하게 된다(시노하라, 2022, 91).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일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우리의 문명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거기에 우리의 집들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의 집으로서 지구가 붕괴하고, 삭막한 행성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바로 거기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때 인간이 만든 인공/사회/문명에 난입하여 파괴하는 자연은 우리가 길들인 혹은 길들여왔다고 착각한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타자적 자연의 모습이다. 본래 이 두 자연의 모습은 같은 자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계와 문명의 힘으로 자연을 정복한다고 착각하면서, 완전히 망각했던 자연의 타자적인 다른 모습 말이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 가던 시공간이 “객관적인 인식의 조건들로서 초월적론적인 시간-공간의 형식”이라고 믿어왔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하는 깨달음이다(시노하라, 2022, 113).

이렇게 만나는 자연의 모습은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이 아니라, 어쩌면 칸트가 말하던 ‘물 자체’(Ding an sich)로서 자연과 같아서, 우리에게 전적인 타자로 다가오는 낯선 자연일 것이고, 그래서 모튼은 ‘자연과 같은 것’ 혹은 본래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Morton, 2013, 58). 인간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야생성을 지닌 어떤 것으로서 자연을 상상하지만, 실은 자연은 유기체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기체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그 붕괴는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멸을 통해서 증언하며, 거기에 사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한다. 우리가 사물을 만나는 곳은 “인간화가 미치지 않는 곳” 혹은 “인간적인 세계가 균열되는 곳”이기 때문이다(시노하라, 2022, 67). 붕괴를 통해 사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그것은 인간중심적 이해가 투사된 자연이 아니라 사물 즉 ‘무기물의 세계’일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킨 ‘자연’은 결코 우리의 낭만적인 투사를 담지한 ‘outdoor’의 장으로서 자연이 아니라, 비

5) 그렇게 붕괴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폐허에서, 시노하라는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 왜소함을 통해 차크라바티의 “행성과 조우하는 감각”을 발견한다(시노하라, 2022, 18).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자연일 것이다. 이 비유기체적 자연 안에 유기체적 자연이 포함된 것이지, 결코 그 역은 아닌 것이다. ‘붕괴’는 우리가 평상시 ‘손안의 존재’(Zuhandenheit)로 살아갈 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드러내 주면서, 그 문제를 통해 사물성을 드러낸다. 그렇게 “인간은 사물이 부서져야 비로소 그것에 의지하여 살고 있음을 의식화하는데, 이 의식화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다”(시노하라, 2022, 77).

## 2. 일본 근대 공업기의 오염된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물(物)의 소리

사물을 만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사물을 대상으로서, 다시 말해 사물을 단지 거기에 있는 객체로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시노하라, 2022, 71). 이 사물성이 드러나는 시공간으로서 환경은 “인간화되지 않을 여지, 인간에 의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다(시노하라, 2022, 79). 그리고 무언가의 ‘일어남’은 언제나 존재들의 얽힘 안에서 일어나기에, 환경이나 세계는 곧 객체로서의 사물들의 상호연관성이 펼쳐지는 곳, 즉 상호객체성(interobjectivity)을 통해 세계가 구성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들의 상호주체성의 세계가 이 상호객체성의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호객체성의 세계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인공적인 ‘상호주체성의 세계’가 담겨진다.

주체가 객체를 만난다는 것은 곧 객체를 주체의 각도에서 파악한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해서 주체의 객체 이해는 언제나 주체가 파악할 수 없는 시각 지대를 갖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객체 이해는 언제나 알 수 있음과 알 수 없음 사이에서 진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체의 객체 이해가 담지한 불안정성이 결코 객체들의 존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객체들의 완고하고 엄연한 사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객체들의 엄연한

사실성은 그들의 행위주체성으로 나타난다. 이 객체의 행위주체성을 시노하라라는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신일본질소 화학공장에서 유기수은 유출사태를 통해 예증한다.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유기수은은 물고기를 폐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물고기를 먹은 인간의 몸도 유기수은으로 오염되어 버렸다(시노하라, 2022, 125-126). 우리가 기후시스템에 압박을 가해 움직이게 만들고, 그 영향을 받은 기후 시스템이 다시 인간의 소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 즉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객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끼친 영향력은 객체들의 행위주체성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돌아오는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와 팬데믹이 바로 그것들이다.

인간 문명에 의해 버려진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위자 위에 쌓여가고, 그렇게 쌓인 물질의 힘은 ‘tipping point’를 넘기면 거대한 초객체(hyperobject)의 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 인류세 시대에 우리가 대면하는 위기들, 즉 기후재난과 생태재난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노하라에게 “사물성이 감지되는 장소는 인간의 생활과 조화된다고 여겨지는 유기체론의 전체(全體)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시노하라, 2022, 182). 말하자면, 근대 이래 철저한 산업화로 인간의 정신은 사라지고, 물질문명이 절정에 달한 곳에서, 이제 “인간의 정신작용으로는 수렴할 수 없는 압도적 힘에 의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초래되고, 동일본 대지진같은 자연의 재난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폐허가 된 곳에서 “물질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러한 폐허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시노하라, 2022, 185). 이것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경험하는 사물성이 던져주는 경고이다.

## V. 더 잘 실패하기(A Failing Better)

우리는 실패할 운명이다. 그것은 언어를 매개로 실재를 만나는 인간이라

는 존재의 근원적 운명이다. 우리가 실재와 소통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언어와 개념은 언제나 성공하는 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실패는 우리를 절망케하고 좌절케하고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를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의 근원적인 “알지못함”(unknowing)을 알려준다(Keller, 2022, 222). 우리의 실패를 자각한다는 것은 성공을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실패에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잘 실패하는 것” 혹은 “보다 낮게 실패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Keller, 2022, 224). 그래서 켈러는 사무엘 벅트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모르는게 더 낫다”(unknow better now) 혹은 “지금 더 나은 것을 알지 말자”라고 말한다(Keller, 2022, 225). 실패를 외면하거나 극복하려 하지 말고, 실패와 더불어, 그 실패를 부동켜 안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그리고 팬데믹같은 사건들은 우리의 개별적인 성/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들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더 잘 실패하기’는 더 나은 성취나 결과를 위해 지금은 실패하지는 주의가 아니라, 지금의 실패를 더 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지만, 그 실패에 주저앉아 좌절하지는 주의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희망의 싹을 어떻게 틔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패의 이분법을 넘어 ‘더 낮게 실패하기’(failing better)를 실천하면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앎과 지식의 지평 너머에 초월적 지평이 작용하고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켈러는 “신과 함께 만들기”(theopoiesis)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Keller, 2022, 231).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지전능한 인격적 형상의 신이 아니라, 전혀 낯선 타자로 다가오는 신, 그래서 매우 이질적이고 낯선 존재로 다가오는 자연과 같은 신을 말한다. 하지만 타자로서의 자연과 다른 점은 이 신은 실재의 자리가 아니라 가상의 자리로부터 도래한다는 점이다.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신다”(God does not exist

... but God insists)라는 존 카푸토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신의 자리는 존재론이 아니라 “아마도”(God of *perhaps*)의 가상적 혹은 잠재적 차원이라고 켈러는 주장한다(Caputo, 2013, 14). 예를 들어, 정의, 사랑, 평화 등과 같은 문명의 이상들은 우리 현실에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된 적이 없다.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즉 이 신은 실패의 신이다. 역사적으로 시도된 모든 혁명들은 이 신의 자리에서 시도되었고, 모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 신은 이 실패들을 외면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그 실패들 속에서 그 본래의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제공한다. 실패의 신이지만, 실패에 좌절하거나 나처럼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실패의 전철을 받기를 염원하는 그런 허찮은 마음의 신이 아니라, 실패한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하며, 그 실패를 아파하고 좌절하며 상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이상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는 신이다. 그래서 희망의 신이지만, 결코 낙관주의로 포장된 희망을 품지는 않는다. 이러한 신은 전통 철학의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은 존재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이나 사건’을 통해 “실존하시기를 고집”하는 존재이며, 이 신적인 초월적 지평의 “유혹”(lure)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의 변혁을 추구한다(Keller, 2022, 223). 신의 이 존재로의 고집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로 희망의 불빛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곳에서 피어나는 ‘어두운 빛’(luminous darkness)일 수도 있지만,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신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함께 하면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그 이상들을 만물 속에 실현하고자 촉구하는 고집스런 힘이다. 켈러가 말하는 ‘신과 함께 만들기’(theopoiesis)는 바로 이런 류의 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해러웨이의 “함께-만들기”(sympoiesis)를 신학적으로 번역하여 제시되는 “신과-함께-만들기”(theopoiesis)는 섬김의 대상으로서 신을 만들자는 ‘신-만들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상처에 함께 하면서, 그 상처와 좌절로부터 희망을 함께 만들어내는 ‘신’을 말하며, 이것이 ‘신’의 본래적 의미일 것이라고 켈러는 추론한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의미는 바로 그 ‘함

께(sym-)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신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all in all)으로 표현된다(Keller, 2022, 231). 이 신은 이 물질 세계의 변화와 사라짐의 힘으로부터 면제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는 존재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며, 우리와 함께 삶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이를 철학자 조성환과 종교학자 허남진은 이규보를 인용하며 “동병상구”(同病相求)라고 표현한다(조성환 허남진, 2021, 66). ‘동병상구’란 같은 아픔으로 서로를 구한다는 의미로 고려 문인 이규보의 말이다. 서로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이규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로의 아픔에 함께하며,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신과-함께-만들기’(theopoiesis)의 힘이자 잠재력인 것이다. 아픔에 함께 한다는 것은 상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실패와 상처보다 더 한 것을 일구어가며 서로를 구원한다.

따라서 ‘실패하는게 더 낫다’는 의식이나 ‘더 나은 실패’의 의식은 결코 비판주의나 체념 혹은 좌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실패는 모든 존재의 얽힘 속에서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으로서 신성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서로를 향한 실패”를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신성을 어떻게 실망시키고 있는가를 자각하자는 것이다(Keller, 2022, 261).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를 향한 실패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불구하고-응답할-수-있는”가이다(Keller, 2022, 263).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 응답-능력(response-ability)에 달려있다. 서로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들을 부동켜 안고, 서로에게 응답하면서, 다시 수많은 실패들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희망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신의 형상’(imago dei)인 것이다.

## VI. 나가며

사실 시장만능주의가 전세계 정치를 유린하고 “국가의 정치력에 의존하여 시장의 과정들을 촉진하고 보호하고 확장하고, 또한 ‘무제한의 권리로 로비를 벌이고 선거 캠페인에 개입’하여 법인으로서 기업의 법률적 권리들을 지켜주고, 노동조합들을 감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를 촉구하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서(Keller, 2022, 91) 우리의 희망은 늘 “검은 수의를 걸친 희망”(hope draped in black)<sup>6)</sup>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거나 은폐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정한 희망이 되려면, 바로 우리의 실패와 난국들과 더불어-머물기(staying-with)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난국과 더불어 머문다는 것은 ‘체념’이나 부정적인 비관주의 혹은 염세주의(negative passivism)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부정성’(negativity)이 놓여있고, 이는 시노하라가 말하는 ‘사물의 힘’처럼 우리에게 파멸적인 귀결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같은 동전의 반대면으로 이 부정성은 우리의 기존 세계가 표출하는 낙관주의를 해체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부정성은 우리에게 “어둠 속의 희망”(hope in the dark)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Keller, 2022, 59). 난국과 더불어 머물기는 절망과 상실의 위협을 버텨내면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버텨낸다는 것은 최종 해결책이 결여된 상황, 즉 보장된 미래가 결여된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절망과 상실의 세계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무수히 “미완결된 배치들 속에 뒤얽혀 죽을 운명의 평범한 생물들로서 진심으로 현존하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Keller, 2022, 172). 그렇기에 우리의 “함께-머물기”(staying-with)는 “때로 말할 수 없는 상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Keller, 2022, 178).

6) 켈러는 이 ‘표현’을 Joseph R. Winters, *Hope Draped in Black: Race, Melancholy, and the Agony of Progres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으로부터 빌려왔다(2022, 91).

희망은 바로 이 절망과 혼돈의 심연에서, 그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절망과 상실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것인데, 이는 절망과 혼돈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과 상실 속에서 “희망없음을 포용하기”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다(Keller, 2022, 173). 그래서 켈러는 “더 낮게 실패하기”(failing better)의 정치·신학적 실천을 통해, 잘못된 세계의 실패와 붕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세계를 꿈꾸어야 할지를 신학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Keller, 2022, 226). 많은 경우, 그저 실패하는 게 낫다. 차라리 실패했으면 작은 상처에 그치고 말 것이 잘못된 성공으로 더 커져,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오늘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바로 그런 류의 ‘화(禍)’이다. 지구 위 전 존재를 6번째 대멸종으로 이끌어가는 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들은 우리의 근대 문명이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도래하게 되는 참화(慘禍)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또 다른 잘못된 성공으로 잘못된 망상에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실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실패가 성공보다 더 값지다.

**【주제어】** 실패, 지질학적 행위자로서 인간, 더 낮게 실패하기, 신과-함께-만들기,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캐서린 켈러

[참고문헌]

- 박일준 (2019). 테크노-영지주의 시대의 종교성 비판: 사물의 관계적 얽힘의 종교성을 향하여. 한국조직신학논총, 제57집, 129-170.
- \_\_\_\_\_(2021). 객체지향의 철학: 초객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공생. 인문논총, 제55집, 5-30.
- \_\_\_\_\_(2022). 우리는 ‘비인간’ 가족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삶을 만들어어나가기. 기독교 철학, 34호, 33-66.
- 시노하라 마사타케 (2022). 인류세의 철학: 사변적 실재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 조성환, 이우진, 야규 마코토, 허남진 역.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2.
- 조성환-허남진 (2021).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애니미즘의 재해석과 이규보의 사물인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66집, 61-77.
- Caputo, J.D (2013). *The Insistence of God: A Theology of Perhaps*.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Chakrabarty, D. (2021).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utzen, P. & Stoemer, E. (2000). “The Anthropocene,” *IGBP Newsletter*, No.41: 17-18.
- Hallberstam, J. (2011). *The Queer Art of Failu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 Haraway, D.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s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_\_\_\_\_(2016). “Tentacular Thinking: Anthropocene, Capitalocene, Chthulucene”, *e-flux Journal*. issue #75: 1-14. online material: [https://editor.e-flux-systems.com/files/67125\\_e-flux-journal-tentacular-thinking-anthropocene-capitalocene-chthulucene.pdf](https://editor.e-flux-systems.com/files/67125_e-flux-journal-tentacular-thinking-anthropocene-capitalocene-chthulucene.pdf)
- Harman, G. (2016). *Immaterialism: Objects and Social Theory*. 김효진 옮김 (2020). 『비유물론: 객체와 사회 이론』. 갈무리.
- Keller, C. (2018). *Political Theology of the Earth: Our Planetary Emergency and the Struggle for a New Public*. 박일준 옮김 (2022). 『지구정치신학: 지구적 비상상태와 새로운 생태신학의 전환점을 위한 투쟁』. 충남, 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2004).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8).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e Regime*. 박범순 옮김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서울: 이음.
- Morton, T. (2013). *HyperObjects: Philosophy and Ecology After the End of the Worl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eisman, A. (2007). *The World Without Us*. 이한중 옮김 (2020). 『인간없는 세상』. 알에이치코리아.

## [국문초록]

본고는 인류세 시대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실패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으로 진단한다. 매년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기후재난들과 생태재난들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구축한 문명이 처참한 실패, 즉 6번째 대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진보나 우주 식민지 개척을 통한 진보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이 경고를 외면한다. 디페치 차크라바티는 이를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의 혼동으로 야기되는 불감증이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세란 인간이 이제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구를 다른 행성과 다름없는 하나의 행성으로 간주하고, 이 행성의 거주가능성(habitability)을 고려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노하라 마사타케는 동일본 대지진이 남긴 파멸의 흔적들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실패들을 적나라하게 고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한다. 동일본 대지진이 남긴 폐허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도래하는 시간의 상징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실패를 성찰한다는 것은 패배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된 희망으로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실패를 성찰한다는 것은 그 실패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재구성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맥락에서 인류세 시대의 우리의 실패들을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 Political Theology of Failure

- A Religio-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Failure of the Anthropocene

Park, Iljoon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diagnose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our humanity in the Anthropocene era as 'insensitivity to failure'. The unprecedented climatic and ecological disasters we have been experiencing in each year have been strongly warning that the civilization built by mankind so far is heading towards a catastrophic failure, that is, the 6th mass extinction. However, dreaming of a new leap in progress through the advanced development of brilliant new technologies or through space colonization, we ignore this warning. Depesh Charkravarti diagnoses this ignorance as insensitivity due to the confusion between 'the global' and 'the planetary', urging that we start by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 Anthropocene means that humans now have become geological actors. This means that the earth should be regarded as a planet no different from other planets, and alternatives should be sought in considering the habitability of this planet. While reflecting on the traces of destruction left by the East Japan Mass Earthquake, Shinohara Masatake ponders over ways to see our failures straight. This is because the ruins left by the East Japan Mass Earthquake are more likely to be symbols of the time to come, not the time that has passed. Reflecting on failure does not mean defeatism. But it also doesn't mean turning a blind eye to our failures with false hopes. Reflecting on failure means reconstructing ourselves anew through those failures, and in this context, it is very important to reflect on our failures in the Anthropocene era.

**[Keywords]** Failure, Humans as geological agents, Failing Better, Theopoiesis,  
Dipesh Chakrabarty, Catherine Keller

논문투고일: 2024년 02월 28일 / 논문심사일: 2024년 04월 0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25일

**[저자연락처]** iljoon85@gmail.com